

접사성 ‘친(親)’의 어휘 형성 연구

당카이위(唐凱鈺)*

국문초록

한자어 ‘친(親)’은 ‘친할머니’, ‘친부모’와 같은 접두사로 친족 관계 명사 앞에 붙여 ‘혈연관계인’ 뜻하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친정부(親政府)’, ‘친환경(親環境)’ 등을 접두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남계친(男系親)’, ‘비속친(卑屬親)’ 등과 같은 단어의 ‘친(親)’을 접미사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준접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접사와 준접사의 통성을 대비함으로써 양자의 차이점을 찾고, 접두사로서 ‘친(親)’은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국어 파생어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친(親)’은 의존형식인 접두사로서 친족 명사와 결합을 통하여 어떤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얻게 되었다. 본고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접두사 ‘친(親)’의 의미를 살펴보는 동시에 친족 관계(촌수)를 나타내는 다른 접두사 ‘시(嫗)-’, ‘생(生)-’, ‘양(養)-’, ‘외(外)-’ 등을 비교하여 이들 접두사들 사이에 어떤 의미적 또는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접두사 ‘친(親)’의 특징과 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본고는 준접두사 ‘친(親)’과 준접미사 ‘친(親)’에 대하여 한국어 파생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그 의미적, 기능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을 통해 ‘친(親)’과 결합하는 어근이나 어기의 의미적인 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관계를 관찰하여 ‘친(親)’이 포함된 단어는 구조적 공통점을 찾아내고 ‘친(親)’을 포함하는 단어의 형성 패턴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접사성 ‘친(親)’, 접두사, 준접두사, 준접미사, 단어형성 패턴, 추상의 틀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접사성 ‘친(親)’의 어휘 형성 패턴 |
| II. ‘친(親)’의 접사성 판정 | V. 맺음말 |
| III. 접사성 ‘친(親)’의 어휘에 대한 분석 | |

* 경희대학교 / tkytky1017@gmail.com

I. 머리말

한국어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한자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자어는 고유어나 외래어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¹⁾ 이와 같이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중요성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자어는 고유어나 외래어와 달리 중국어로부터 유입된 어휘로서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언어·어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한자어는 연구 가치가 높다. 본 연구는 한자어 형태소로서 접사성을 가지고 있는 ‘친(親)’이 포함된 단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한국어에서 이런 단어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접두사, 준접두사, 준접미사로 ‘친(親)’을 포함하는 단어의 형성 패턴을 연구하겠다.

- (1) 가. 친모(親母), 친부모(親父母), 친동생(親동생)
- 나. 친환경(親環境), 친유럽(親유럽), 친정부(親政府)
- 다. 대공친(大功親), 남계친(男系親), 비속친(卑屬親)

예시 ‘(1)가’ ‘친모(親母)’의 ‘친(親)’이 ‘직접 낳은’의 의미로 변화되고 후행 자립성을 가지는 명사 ‘모(母)’에 의미를 더해 주기 때문에 ‘친(親)’이 접두사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예시 ‘(1)나’의 ‘친환경(親環境), 친일(親일)’ 같은 단어에서 ‘친(親)’은 ‘친 자연환경’, ‘친 유럽제국’ 이렇게 ‘친(親)’과 후행 결합한 어기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접두사의 자격을 떠나 접두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또한, 사전에서는 ‘친(親)’의 접미사 문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시 ‘(1)다’의 ‘친(親)’이 접미사적 성격을 갖는 것이 분명하네 이때 ‘친(親)’이 접미사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도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사성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에 대해 ‘준접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먼저 본고에서는 접사성이 있는 ‘친(親)’을 접두사, 준접두사, 준접미사로 사용할 때의 차이점 구분하고자 한다. 접두사로서 ‘친(親)’은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국어 파생어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친(親)’은 의존형식인 접두사로서 친족 명사와 결합을 통하여 어떤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얻게 되었다. 본고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접두사 ‘친(親)’의 의미를 살펴보는 동시에 친족 관계(촌수)를 나타내는 다른 접두사 ‘시(嫗)-’, ‘생(生)-’, ‘양(養)-’, ‘외(外)-’ 등을 비교하여 이들 접두사들 사이에 어떤 의미적 또는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접두사 ‘친(親)’의 특징과 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본고는 준접두사 ‘친(親)’과 준접미사 ‘친(親)’에 대하여 한국어 파생어 형성에서

1) 허철, 『『現代國語使用頻度調査1・2』를 통해 본 漢字語의 비중 및 漢字의 活用度 조사』, 『한문교육논집』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221~244쪽 참조.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 국립국어연구원)와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2005, 국립국어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대 한국어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자어 영역의 비율이 66.31864%로 가장 높음을 나타내고 이어 고유어 영역 26.121%, 외래어 영역 4.0198% 순이며, 한자어를 사용하는 어휘를 모두 포함하여 본다면 한자어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604%라고 밝혔다. 현대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각 분야에서 고유어와 외래어보다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드러냈다.

나타나는 양상과 그 의미적, 기능적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상을 통해 ‘친(親)’과 결합하는 어근이나 어기의 의미적인 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관계를 관찰하여 ‘친(親)’이 포함된 단어는 구조적 공통점을 찾아내고 ‘친(親)’을 포함하는 단어의 형성 패턴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친(親)’의 접사성 판정

본고에서는 김규철²⁾을 바탕으로 준접사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다. 준접사는 어떤 형태소가 점차 어근성을 벗어나 접사와, 또는 문법화되는 과정에 처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로 인해 준접사는 부분적인 접사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만약 이 과정이 더 진행되면 의미도 변화할 수 있고 통사적 기능도 접사로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 접두사 ‘친(親)-’과 준접두사 ‘친(親)-’의 구별

연구자들이 설정한 접두사 판단 기준과 준접두사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둘의 차이점을 관찰한 다음에 접두사 ‘친(親)-’과 준접두사 ‘친(親)-’의 구별을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한국어 한자어에서 접두사와 준접두사에 관한 논의는 노명희,³⁾ 방향옥,⁴⁾ 그리고 서미옥⁵⁾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준접두사의 설정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이 제시하지 않았다.

노명희⁶⁾에서는 접두한자어를 접사성에 따라 순수한 접두사와 약활성어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접두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표 1〉와 같이 접두사와 약활성어근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표 1〉 노명희⁷⁾ 한자어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특성 대비

	분포상 제약	형태적 분리성	수식범위 한정	대치 가능성	어기범주 변화	의미 변화	생산성	고유어와의 결합	대응고유어 접사성
접두사	+	-	+	-	±	±	+	+	+
준접두사 ⁸⁾	+	±	-	-	±	-	-	±	-

2) 김규철, 「漢字語 單語形成에 관한 研究: 固有語와 比較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67~82쪽.

3)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2005, 79~96쪽.

4) 방향옥,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5~64쪽.

5) 서미옥, 「한자어 접두사 ‘친(親)’에 대한 연구 - 준접두사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7~30쪽.

6) 노명희, 앞의 책, 2005, 79~96쪽.

7) 노명희, 위의 책, 2005, 79~96쪽.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접두한자의 특성에 따라 순수한 접두사와 준접두사를 구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중에서 ‘분포상의 제약’, ‘형태적 분리성’, ‘수식범위 한정’, ‘대치 불가능성’은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보이며 준접두사는 관형사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방향옥⁹⁾에서는 접두사의 설정 기준에 따라 이를 완전한 접두사와 준접두사로 구분하고 있다. 완전한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특성을 대비한 내용은 다음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방향옥¹⁰⁾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특성 대비

	1음절성	의존성	여기의 범주변화	고유어나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생산성
접두사	+	+	+	+	+
준접두사	+	-	-	-	-

〈표 2〉을 보면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차이는 주로 ‘의존성’, ‘여기의 범주변화’, ‘고유어나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생산성’ 등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서미옥¹¹⁾에서는 접두사 설정 기준에 따라 완전한 접두사와 준접두사로 나뉘고 있다.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특성을 대비한 내용은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서미옥¹²⁾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특성 대비

	비자립성	수식범위 제한성	의미의 유연성	고유어나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접두사	+	+	±	+
준접두사	+	+	±	-

〈표 3〉을 보면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차이점은 주로 ‘고유어나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준접두사는 관형사와도 다르고 접두사와도 다르지만 일정한 생산성도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사성이 있는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한문의 특징은 점차 약화되면서 앞으로 고유어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 이것은 고유어와 결합할 수 있는 한자어는 어느 정도 파생어를 창조할 수 있는 잠

8) 노명희, 위의 책, 2005, 29~47쪽 참조. 한자어 접두사의 특성에 따라 순수한 접두사와 접사적 성격을 띤 약활성어근을 구분하고 있다. 본고는 접사의 성질을 가진 형태의 동일한 호칭을 위해 준접사(준접두사, 준접미사)로 함께 지칭하다.

9) 방향옥, 앞의 논문, 2011, 45~64쪽.

10) 방향옥, 앞의 논문, 2011, 45~64쪽.

11) 서미옥, 앞의 논문, 2015, 7~30쪽.

12) 서미옥, 위의 논문, 2015, 7~30쪽.

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준접두사가 완전 접두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한자어 준접두사에 대한 논의들을 보았다. 이 다음부터는 한자어의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 주로 ‘분리성’, ‘의미 변화’, ‘어기의 범주변화’, ‘고유어나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없음(생산성)’ 측면에서 한국어 한자어 준접두사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준인 ‘분리성’은 준접두사가 어기에 대해 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분리될 수 있음을 말한다.¹³⁾ 예컨대, 한국어 한자어에서 ‘신(新)-’은 명사 어기와 결합하면 ‘신제품, 신문화’와 같은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신 문화 체험’, ‘신 유통 제품’과 같이 어기와 분리하여 구와 결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접두사와 후행하는 어기와의 분리 불가성으로 인해 접두사가 결합한 형태는 단어이다. 그러나 준접두사는 후행하는 어기 사이에 다른 단어를 넣어 확장할 수 있는 경우는 관형사적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며, 이는 준접두사가 관형사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가. 친어머니, *친큰어머니, *친 큰 어머니

나. 친환경, 친자연환경, 친 자연 환경

다. 친유럽, 친유럽세력, 친 유럽 세력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예시 (2)에서 ‘친어머니’와 같은 단어의 접두사 ‘친(親)-’은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 사이에 다른 단어를 넣어 확장할 수 없다. ‘친환경’과 같은 단어의 ‘친(親)-’은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 사이에 다른 단어를 넣어 확장할 수 있고 ‘친자연환경’과 같은 단어를 구성한다. 아니면 ‘친유럽’처럼 후행하는 어기 뒤에 다른 단어를 넣어 확장하여 ‘친유럽세력’과 같은 단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때는 ‘친 자연 환경’, ‘친 유럽 세력’과 같이 어기와 분리하여 구와 결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친 큰 어머니와 같이 어기와 분리하지 못하므로 ‘친어머니’의 ‘친(親)-’은 접두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친환경’ 및 ‘친유럽’의 ‘친(親)-’은 어기와 분리하기 때문에 준접두사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친자연환경’과 같은 단어는 ‘친환경’을 바탕으로 다른 단어를 추가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만, ‘자연환경’은 전체적 어기로 본다면 ‘친(親)-’과 ‘자연환경’ 사이를 분리하여 다른 단어를 넣어 확장할 수도 있다. ‘친 세계 자연환경’, ‘친 오주 자연환경’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두 번째 기준은 의미의 변화이다. 준접두사는 그 한자와 의미적 유연성을 지닌다. 앞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준접두사는 의미적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약간의 의미 변화를 겪는 경우는 접두사로 볼 수 있고, 의미 변화가 없는 예는 다른 기준만 충족시키면 접두사로 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아버지(嫜아버지)의 ‘시(嫜)-’는 원의미에서 특별한 변화를 겪지 않은 예인데, 접사적 기능으로만 사용하고 고유어와 결합이 자유롭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접두사로 볼 수 있다. ‘친(親)’을 분석해 본다면 ‘친(親)’은 모두 의미 변화를 겪으면서 접사성을 얻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의미 변화를 겪고 나서 본래 의미와의 유연성을 상실해야 접두사로 볼 수 있고, 의미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본래 의미와의 유연성을 유지한다면 준접두사로

13) 노명희, 앞의 책, 2005, 79-80쪽 참조. 관형사와 비관형사의 구분에서 관형사는 피수식 명사에 의존하나 그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접두사는 어기와 분리를 하지 못하는데 관형사는 어기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볼 수밖에 없다.

- (3) 가. 친동생, 친아버지, 친어머니
 나. 친정부, 친유럽, 친혁명
 다. 친환경, 친생태, 친해양

예시 ‘(3)가’에서 ‘친동생,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친(親)-’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뜻을 더하고 의미 변화를 겪으면서 ‘부모’, ‘친하다’ 등의 본래 의미와의 유연성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친동생,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친(親)-’은 접두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시 ‘(3)나’, ‘(3)다’의 ‘친(親)-’은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사전에서는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의 더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친(親)’의 본래 뜻인 ‘친하다’와의 유연성을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우선 표층적 의미로 분석해 보면 ‘친정부’는 ‘정부와 친하다’라 표층적 의미를 나타낸다. ‘친정부’의 ‘친(親)-’은 단순히 ‘그것에 친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찬성하는’의 구체적인 의미 동작을 통해 발화자가 어떻게 정부와 친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여기서 ‘친(親)-’은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며 원래 의미와의 유연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접사성이 있어 준접두사로만 볼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어기의 범주 변화이다. 준접두사는 어기의 범주 변화가 가능하나, 접두사에 비해 이러한 기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노명희¹⁴⁾에서는 한자어 접두사가 어기의 범주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어기의 범주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은 어근보다 접두사가 더 강하게 나타내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준접두사는 접사와 어근의 사이에 처하는 형태로 정의하며, 준접두사가 어기의 범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근성에 비해 접사성이 보다 강한 근거로 볼 수 있다.

- (4) 가. 어머니가, 어머니를, 어머니에게
 나. *어머니하다
 (5) 가. 친어머니가, 친어머니를, 친어머니에게
 나. *친어머니하다

한자어 ‘친(親)-’은 좀 특수한 예이다. 접두사 용법으로서의 ‘친(親)-’은 어기의 범주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접두사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는 원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류에 속하며, 뒤에 조사를 직접적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접미사 ‘-하’를 결합할 수 없다. 접두사 ‘친(親)-’과 결합하여도 ‘(5)가’와 같이 형성된 새로운 명사류인 단어들은 그의 품사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다. 조사와는 직접 결합할 수 있지만 접미사 ‘-하’와는 결합할 수 없다.

14) 노명희, 위의 책, 2005, 79~96쪽.

- (6) 가. 환경이, 환경을, 환경에
 - 나. *환경하다
 - 다. 환경적
 - 라. 환경 오염, 환경 문제
- (7) 가. 친환경이, 친환경을, 친환경에
 - 나. *친환경하다
 - 다. 친환경적
 - 라. 친환경 실천, 친환경 제품

마찬가지로 준접두사로서의 ‘친(親)-’도 어기 범주를 바꾸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 준접두사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는 명사류에 속하며, 뒤에 조사 및 접미사 ‘-적’을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나 접미사 ‘-하’를 결합하지 않는다. ‘환경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라는 명사가 이미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은 자연,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을 나타내며, ‘-하’와 결합하여 동사로 만들기에는 어색한 조합인데 대신 ‘환경을 조성하다’, ‘환경을 보호하다’와 같은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준접두사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 ‘환경’은 뒤에 나타나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는 수식작용을 할 수 있다. 한편, 준접두사 ‘친(親)-’과 결합하여도 예시 ‘(7)가’와 같이 형성된 새로운 명사류인 단어들은 후행하는 어기와 같은 형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조사 및 접미사 ‘-적’을 직접적 결합할 수도 있고 접미사 ‘-하’를 결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시 ‘(7)라’를 통하여 ‘친환경’도 뒤에 나타나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는 수식적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써 어기의 범주변화는 준접두사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다.

네 번째 기준은 고유어,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즉 새로운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 효율적으로 결합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 외래어와도 생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준접두사는 이러한 결합에서 제한이 있다. 생산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접사성이 있는 한자어는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親)-’은 접두사로서 한자어 및 고유어의 친족어와 결합할 수 있는데 준접두사인 ‘친(親)-’은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와 외래어를 결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연결된 고유어와 외래어는 인명 및 국가명의 쓰임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생산성은 접두사인지 준접두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될 수 없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성’, ‘의미 변화’, ‘어기의 범주변화’, ‘고유어나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없음(생산성)’ 측면을 통하여 접두사와 준접두사를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성’ 및 ‘의미 변화’의 중요한 특징만이 접두사와 준접두사를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접두사와 비교하여, 첫 번째는 준접두사가 결합된 후행하는 어기와 분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준접두사의 의미가 변경되었지만 기본 의미와의 유연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2. 접미사적 ‘-친(親)’의 구별

한국어 단어형성에 사용되는 ‘친(親)’은 어근으로 쓰일 때 의존 어근의 성격을 보이고, 3자어에서 접미사의 위치가 고정되어 쓰일 때 일정한 접미사적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전에서는 ‘친(親)’의 접미사 문법적 지위를 입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설정된 접미사 판정 기준을 통해 ‘친(親)’의 접미사 특성을 검증하고 다음에는 연구자들이 설정한 접미사 판단 기준과 준접미사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둘의 차이점을 관찰하여 접미사적 특성이 있는 ‘-친(親)’이 준접미사인지 또는 접미사인지를 판정하겠다.

먼저 접미사 설정 기준에 따라 단어에서 ‘-친(親)’의 접미사적 특성을 검증하기로 한다. 접미사의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8) 접미사의 설정 기준:

- ① 일음절성
- ② 자립적 어기에 대한 의존성
- ③ 의미변화성
- ④ 단축성
- ⑤ 생산성

1음절성에 대해서는 ‘방계친(傍系親), 남계친(男系親), 기공친(耆功親), 무복친(無服親)’과 같은 3자어에서 한자어 ‘-친(親)’이 1음절의 의존형식인 형태는 분명하다. 이때는 ‘-친(親)’은 독립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선행 연결된 자립적인 어기와 같은 실질적 형태소의 의미를 한정하거나 그 문법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형태소이다. 예를 들어, ‘방계친(傍系親)’의 ‘-친(親)’은 독립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선행 연결된 자립적인 어기 ‘방계(傍系)’와 같은 실질적 형태소의 의미를 한정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방계(傍系)’에 ‘-친(親)’이 결합하여 ‘방계친(傍系親)’이 되는 것과 같이 무정물이 유정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친(親)’은 선행 연결된 어기의 자질을 바꾸어 그 문법적 특성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3자어에 있는 ‘-친(親)’은 의존형식으로 자립적 어기와 결합하여 단어를 구성한다.

(9) 가. 방계친(傍系親), 내외친(內外親), 유복친(有服親)

나. 내친(內親), 외친(外親), 양친(養親)

다. 복친(服親), 사친(私親)

예시 (9)에서 나타난 모든 ‘친(親)’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접미사적 성격으로 기능하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한자어가 2음절 어기와 결합하여 3자어를 형성할 때, 의미 변화의 기준에 따라 접미사적 성격이 있는지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시 (9)처럼 ‘친(親)’이 3자어를 형성할 때에는 어근인지 아니면 접사인지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는 어근이 단어 이상의 어기와 결합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2자어는 어근인지 접사인지 그렇게 쉽게 구별하지 않는다. 예시 ‘(9)가’에서 ‘-친(親)’은 접미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시 ‘(9)나’와 ‘(9)다’의 구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적 기준으로 ‘친(親)’의 성격을 명확히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결합하는 어기의 자립성 여부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예시 ‘(9)나’의 ‘내친(內親)’, ‘외친(外親)’, ‘양친²(養親)’과 예시 ‘(9)다’의 ‘복친(服親)’, ‘사친(私親)’에서의 ‘친(親)’은 모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친(內親)’, ‘외친(外親)’, ‘양친²(養親)’의 ‘친(親)’은 어근으로 기능하는 반면, ‘복친(服親)’, ‘사친(私親)’의 ‘친(親)’은 접미사적 형태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어에서 ‘내친’, ‘외친’, ‘양친’의 ‘내(內)’나 ‘외(外)’나 ‘양(養)’이 자립성을 지니지 않고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것과, ‘복친’, ‘사친’의 ‘복(服)’이나 ‘사(私)’가 자립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예시 ‘(9)나’의 ‘친(親)’은 어근으로, 예시 ‘(9)다’의 ‘친(親)’은 접미사적 형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문법에서는 예시 ‘(9)나’의 ‘내친(內親)’, ‘외친(外親)’, ‘양친²(養親)’에서의 ‘내(內)’나 ‘외(外)’나 ‘양(養)’을 접두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접두사와 접미사는 동시에 결합할 수 없으므로 이 관점에서도 ‘내’, ‘외’, ‘양’과 결합한 ‘친(親)’은 접미사적 형태로 해석될 수 없다. 그래서 2자어나 3자어에서 ‘친(親)’에 자립적 어기에 대한 의존성이 존재하면 접미사적 형태로 볼 수 있다.

(10) 가. 본생친(本生親)

나. 어수친(魚水親)

예시 (10)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자립적 어기를 가진 3자이지만, 여기서 ‘친(親)’은 접미사적 성격을 띠다고 보기 어렵다. ‘본생친(本生親)’은 ‘양자로 간 사람의 생가의 부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親)’은 ‘부모’를 뜻하는데 기본 의미와 달라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어수친(魚水親)’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친밀한 관계를 비유하여 의미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립형 어기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예시 (10)의 ‘친(親)’은 어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계친(傍系親), 내외친(內外親), 유복친(有服親)’과 같은 단어들이 자립형 어기와 결합하면서 ‘-친(親)’의 의미가 바뀌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또한, 이때 ‘-친(親)’은 ‘친족’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는 단축성을 갖는다. 그래서 ‘방계친(傍系親), 내외친(內外親), 유복친(有服親)’의 ‘-친(親)’은 접미사적 성격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2자어와 3자어에서 ‘친(親)’은 접미사 위치에 고정되어 접미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접미사적 특성을 가진 이러한 ‘친(親)’이 접미사인지 준접미사인지 연구하기로 한다.

한자어 준접미사의 설정 기준은 한자어 준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어 한자어의 접미사와 준접미사에 대한 논의는 노명희¹⁵⁾와 방향옥¹⁶⁾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 노명희¹⁷⁾의 접미사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접미사와 준접미사의 특성을 다음 〈표 4〉과 같이 대비하

15) 노명희, 위의 책, 2005, 96~113쪽.

16) 방향옥, 앞의 논문, 2011, 69~75쪽.

여 정리할 수 있다.

〈표 4〉 노명희¹⁸⁾ 한자어 접미사와 준접미사의 특성 대비

	의존성	어기의 비자립성	변화 의미	어기범주 변화	생산성	조사결합 제약	구와결합	명사수식	첫음절에 출현불가
접미사	+	+	+	±	+	+	+	+	+
준접미사	+	+	±	±	-	+	+	+	-

준접미사는 접미사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므로 접미사와는 몇 가지 특성에서 유사성이 있다. 〈표 4〉에서는 ‘의미 변화’, ‘어기의 범주변화’, ‘생산성’, ‘첫음절에 출현 불가’ 등 특성은 접미사와 준접미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방향옥¹⁹⁾에서는 한자어 접두사 설정 기준에 따라 완전한 접두사와 준접두사로 나뉘고 있다. 준접미사의 판단 기준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특성을 대비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방향옥²⁰⁾ 한자어 접미사와 준접미사의 특성 대비

	1음절성	어기에 대한 의존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어기 범주 변화	생산성
접미사	+	+	+	+	+
준접미사	+	+	-	-	-

위 〈표 5〉를 보면 주로 ‘의미의 유연성 상실’, ‘어기 범주변화’, ‘생산성’ 등 측면에서 접미사와 준접미사의 차이를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접미사와 준접미사의 공통점은 모두 ‘1음절성’ 및 ‘어기에 대한 의존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한자어 준접미사에 대한 논의들을 보았다. 한자어의 접미사와 준접미사의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주로 ‘의미의 유연성 상실’, ‘어기의 범주변화’, ‘첫음절에 출현 불가’, ‘생산성’ 측면에서 한국어 한자어 준접미사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준인 ‘의미의 유연성 상실’은 준접미사는 의미 변화가 약하고 의미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언급한 준접두사를 고려할 때 의미 변화 정도가 약하고 의미적 유연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17) 노명희, 앞의 책, 2005, 96~113쪽 참조. 접미한자어의 설정 기준에 따라 접미사, 준접미사, 의존명사로 구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18) 노명희, 위의 책, 2005, 96~113쪽.

19) 방향옥, 앞의 논문, 2011, 69~75쪽.

20) 방향옥, 위의 논문, 2011, 69~75쪽.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접사의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 ‘(11)가’의 ‘-친(親)’은 ‘친족’이라는 의미인데 예시 ‘(11)나’의 ‘-친(親)’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라는 의미이다. 후자는 의미 변화를 겪었지만 어근으로서의 의미와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시 ‘(11)나’의 ‘-친(親)’은 어느 정도 접미사성은 있지만 본래 의미와의 유연성을 상실하지 않아서 준접미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1) 가. 내친(內親), 외친(外親), 양친²(養親)

나. 방계친(傍系親), 내외친(內外親), 유복친(有服親)

두 번째 기준인 ‘어기의 범주변화’를 적용하여 확인해 보기로 한다. 한국어에서 고유어나 한자어 접미사는 어기를 바꿀 수 있는 통사적 범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자어 접미사의 경우, 어기의 범주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필수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 합성어라도 후행하는 어근이 선행하는 어근의 어휘 범주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계친(傍系親)’ 등과 같은 단어의 경우, 어기 ‘방계(傍系)’든 ‘-친(親)’과 결합한 ‘방계친(傍系親)’이든 모두 접미사 ‘-하’와 직접 결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계(傍系)’에 ‘-친(親)’이 결합하여 ‘방계친(傍系親)’이 되는 것과 같이 무정물이 유정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어기 범주변화 여부의 기준은 접미사인지 준접미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첫음절에 출현 불가’인데 동일한 의미로 다른 단어의 첫 절에 사용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단어의 첫음절에 사용할 수 없다면 접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접미사로서의 위치가 굳어진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生)’, ‘자(者)’ 등은 같은 의미로 단어의 첫음절에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접미사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 접미사가 2음절 어기의 첫음절에 나타난다고 해서 접미사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친(親)’의 경우를 보면 ‘친계(親系), 친등(親等)’ 등과 같은 단어에서 ‘친(親)’은 동일한 의미로 2음절 어기의 첫음절에 나타나므로 접미사적 성격을 띤 준접미사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미사보다 준접미사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자어 접미사들은 대부분 아주 생산적이다. 접미사는 단어의 어기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참여하여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파생해야 한다. 그러나 준접미사는 연결된 어기의 종류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친(親)’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계친(傍系親), 내외친(內外親), 유복친(有服親)’과 같이 어기와 결합할 때 어기의 종류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한자어와만 결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준접미사는 생산성에서 접미사에 비하여 높지 않다. 물론 생산성만으로 접미사인지 준접미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미적 기준 등 다른 기준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의 유연성 상실’, ‘어기의 범주변화’, ‘첫음절에 출현 불가’, ‘생산성’ 측면을 통하여 접미사와 준접미사를 구별할 수 있다. ‘어기의 범주변화’ 기준은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의미의 유연성 상실’, ‘첫음절에 출현 불가’, 그리고 ‘생산성’의 중요한 특징만이 접미사와 준접미사를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접미사와 비교하였을 때, 준접미사는 그 의미가 변하였어도 기본 의미와의 유연성을 상실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2음절 단어의 첫음절에 나타나며,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이 차이점임을 알 수 있다.

Ⅲ. 접사성 ‘친(親)-’의 어휘에 대한 분석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의 접사성이 있는 ‘친(親)’이 포함된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한자어 ‘친(親)’의 예들은 주로 1999년에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2005년에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2006년에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 2009년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수집하였다.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12) 가. 사전류:

- ①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9.
- ②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편, 2005.
- ③ 《연세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편, 2006.
- ④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2009.

나. 말뭉치 자료: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접사성이 있는 ‘친(親)’이 포함된 파생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친(親)’이 파생어에서 앞이나 뒤에 놓인 위치에 따라 접두사적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접미사적 형태도 될 수 있는 것이며, 변화된 의미와 원래 의미의 유연성과,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가 분리성 등 기준에 따라 접두사, 준접두사 및 준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친(親)’이 포함된 파생어는 [‘친(親)’(접두사)+X(어기)], [‘친(親)’(준접두사)+X(어기)], [X(어기)+‘친(親)’(준접미사)]의 구성하는 단어이다.

1. [‘친(親)’(접두사)+X(어기)] 구성

〈표 6〉은 국어사전을 통해 수집한 [‘친(親)’+X(어기)] 구성 단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이미 한자어 ‘친(親)-’이 접두사로 쓰이는 용법을 인정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노명희,²¹⁾ 주교령²²⁾ 등 여러 논저에서도 접두사 설정의 기준을 규정하여 ‘친(親)-’이 접두사의 성격을 갖는 것을 인정하

21)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6~23쪽.

22) 주교령,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중국어 접두사의 비교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70~72쪽.

〈표 6〉 수집한 [‘친(親)’(접두사)+X(어기)] 구성 단어

구성	예시
‘친(親)’+ 한자어	<p>2음절: 친모(親母), 친부(親父), 친녀(親女), 친자(親子), 친제(親弟), 친형(親兄), 친질(親姪), 친매(親妹)</p> <p>3음절: 친남매(親男妹), 친동기(親同氣), 친부모(親父母), 친부형(親父兄), 친사돈(親查頓), 친사촌(親四寸), 친삼촌(親三寸), 친손녀(親孫女), 친손자(親孫子), 친손주(親孫主), 친자매(親姊妹), 친자식(親子息), 친조모(親祖母), 친조부(親祖父), 친형제(親兄弟), 친인척(親姻戚), 친혈육(親血肉), 친처남(親妻男), 친이모(親姨母), 친모자(親母子), 친가정(親家庭), 친가족(親家族), 친모녀(親母女), 친장손(親長孫)</p> <p>4음절: 친조부모(親祖父母), 친생부모(親生父母), 친증손자(親曾孫子)</p>
‘친(親)’+ 고유어	<p>2음절: 친탁(親탁)</p> <p>3음절: 친누나(親누나), 친누이(親누이), 친동생(親동생), 친아들(親아들), 친아버(親아버), 친아우(親아우), 친어미(親어미), 친언니(親언니), 친오빠(親오빠), 친조카(親조카), 친할미(親할미), 친팔촌(親팔촌), 친을케(親을케)</p> <p>4음절: 친아버지(親아버지), 친어머니(親어머니), 친어버이(親어버이), 친할머니(親할머니), 친할아버(親할아버), 친할아버지(親할아버지), 친오누이(親오누이), 친오라비(親오라비), 친살불이(親살불이)</p>

였다.

접미사로 쓰이는 ‘친(親)’과 달리 접두사로 쓰이는 ‘친(親)-’이 더 다양한 어종들을 결합한다. 사전을 검색하면 접두사 ‘친(親)-’이 파생된 파생어의 어기는 외래어와만 결합에 제한이 있으므로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는 모두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어기이다. 즉, ‘친(親)-’이 접두사로 쓰이는 접두파생어에서 한자어 결합형과 고유어 결합형만 존재한다. 그러나 한자어 결합형이든 고유어 결합형이든 ‘친(親)-’과 결합된 후행하는 어기는 모두 친족어 명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결합할 수 있는 어기의 어휘 체계별로 분류할 필요가 없어 접두사 ‘친(親)-’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파생된 접두파생어에 대한 형태적 특성 및 어기의 의미적 범주를 연구할 것이다. 또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파생 접두사 ‘시(嫗)-’, ‘생(生)-’, ‘양(養)-’, ‘외(外)-’ 등을 비교하여 이러한 접두사들 사이에 어떤 의미적 또는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고 접두사 ‘친(親)-’의 특징과 용법을 깊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친(親)’(접두사)+X(어기)] 구성은 2음절, 3음절, 4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단음절 접두사와 2음절 어기가 결합하여 3음절 접두파생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접두사 ‘친(親)-’의 경우는 단음절 한자어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단음절이라도 자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모(親母), 친부(親父)’와 같은 단어의 ‘모(母), 부(父)’는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립형 명사이기 때문에 ‘친모(親母), 친부(親父)’는 접두파생어로 판정받았다.

(13) 가. 어머니가, 어머니를,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어머니로

나. 친어머니가, 친어머니를, 친어머니에게, 친어머니께서, 친어머니로

(14) 가. ‘친(親)’+높임말:

친아버지(親아버지), 친어머니(親어머니), 친할머니(親할머니),

친할아버지(親할아버지)

나. ‘친(親)’+낮춤말:

친아비(親아비), 친어미(親어미), 친할미(親할미), 친할아비(親할아비)

형태적으로 보면 한자어 결합형과 고유어 결합형에서 후행하는 여기는 모두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류에 속하며, 뒤에 조사를 직접적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접두사 ‘친(親)’과 결합하여도 ‘(13)나’와 같이 형성된 새로운 명사류인 단어들은 그의 품사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마찬가지로 조사를 직접 결합할 수도 있다. 또한, (14)를 통하여 접두사 ‘친(親)’ 뒤에 높임말 친족어도 결합할 수 있고 낮춤말 친족어도 결합할 수 있으므로 접두사 ‘친(親)’이 후행하는 여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높임의 명사든 낮춤의 명사든 상관없이 친족어라면 결합에 제한이 없음을 증명하였다.

다음에는 한자어 접두사 ‘친(親)’에 대한 의미적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친(親)’이 접두사적인 쓰임을 보이는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가. 《표준국어대사전》

①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혈연관계로 맺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친부모/친아들/친형제

②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부계 혈족 관계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친삼촌/친손녀/친할머니

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①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쓰여)

‘직계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친딸/친부모/친자매/친형제

②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아버지의 피붙이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친삼촌/친조카/친할머니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친(親)’은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접두사로서 가족 및

친족 관계 몇몇 명사 앞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일단 ‘친(親)’의 주된 뜻인 ‘친하다’와 같은 원의미로부터 멀어져 의미 변화가 생겨서 의미에서는 다시 직계 혈연과 부계 혈연으로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쓰이고 있다. 즉, 접두사 ‘친(親)’은 [+혈연관계의 의미가 [+직계 혈연의 의미와 [+부계 혈연의 의미로 축소된 것이다. 그러니까 ‘친딸, 친아들, 친부모, 친자매, 친형제’ 이런 단어들의 ‘친(親)’이 [+직계 혈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친삼촌, 친손녀, 친조카, 친할머니’ 이런 단어들의 ‘친(親)’이 [+부계 혈연의 의미가 있다.

(16) 가. 친남매(親男妹), 친동기(親同氣), 친자매(親姊妹), 친형제(親兄弟), 친누나(親누나), 친누이(親누이), 친동생(親동생), 친언니(親언니), 친오빠(親오빠), 친아우(親아우), 친제(親弟), 친형(親兄)

나. 친부모(親父母), 친어버이(親어버이), 친아버(親아버), 친어미(親어미), 친아버지(親아버지), 친어머니(親어머니), 친아빠(親아빠), 친엄마(親엄마), 친모(親母), 친부(親父)

다. 친아들(親아들), 친딸(親딸), 친자식(親子息), 친녀(親女), 친자(親子)

예시 (16)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두 [+직계 혈연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다. 그러나 의미적인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직계 혈연의 의미에서는 세 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연관된 의미로 더 세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 ‘(16)가’의 ‘친(親)’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예시 ‘(16)나’의 ‘친(親)’이 ‘자기가 낳은’의 의미를 지니고 예시 ‘(16)다’의 ‘친(親)’이 ‘자기를 낳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직계 혈연의 뜻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기가 낳은’, ‘자기를 낳은’의 세 가지 의미로 더 세분화할 수 있다.

(17) 가. 친-부형(親父兄)

나. 친-양자(親養子)

다. 친-사돈(親查頓)²³ 먼-사돈(遠查頓)

물론 특수한 예도 있다. 예시 ‘(17)가’에서 ‘친부형(親父兄)’은 ‘친아버지와 친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여기서 ‘친(親)’이 보다 세분화된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직계 혈연이라는 의미만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예시 ‘(17)나, 다’의 ‘친(親)’이 ‘(17)가’의 ‘친(親)’과 의미에 큰 차이가 있고 일정한 의미의 특수화를 나타낸다. 예시 ‘(17)나’에서 ‘친-양자(親養子)’는 ‘친(親)’과 ‘양자(養子)’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법률 용어이다. 이 중 ‘양자(養子)’는 입양을 통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등한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친(親)’은 [+혈연관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양자(養子)’와 ‘친-양자(親養子)’의 주된 차이점은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양자(養子)’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친-양자(親養子)’는 그 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과 본에서 ‘양자(養子)’는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반면, ‘친-양자(親養子)’는 양부의 성과 본

23)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 ‘친-사돈(親查頓)’은 남편과 아내 각각의 양(兩)부모 사이에 서로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양자(親養子)’는 ‘친(親)-’이 [-혈연관계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입양으로 맺어진 직계 친족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보일 수 있다.

또한, 예시 ‘(17)나’에서 ‘친-사돈(親查頓)’의 ‘친(親)-’이 [+직계 혈연]이나 [+부계 혈연]의 의미를 표현하기 어렵다. 국어사전에서는 ‘사돈(查頓)’은 ‘자녀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또는 혼인 관계로 척분(戚分)이 있는 사람’의 의미, 즉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또는 그 집안의 같은 항렬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이르는 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분명히 ‘친-사돈(親查頓)’은 ‘친한 사돈’이라고 단순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직접적인 혼인을 통해 맺어진 혈연관계가 없는 친족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 자녀의 결혼 상대방의 부모가 ‘친-사돈(親查頓)’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반의어인 ‘먼-사돈(遠查頓)’은 주로 두 가족 간의 간접적인 결혼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자녀가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가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는 자녀의 결혼 상대방의 사촌이나 그 이상의 관계에 해당하는 부모가 ‘먼-사돈(遠查頓)’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친-사돈(親查頓)’의 ‘친(親)-’이 [-혈연관계]와 [+직접 결혼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가. 친탁

나. 친살불이

그리고 예시 (18)은 ‘친(親)-’에 고유어를 결합한 2자어와 3자어이다. 예시 ‘(18)가’의 ‘친탁’은 ‘생김새나 체질, 성질 따위가 친가 쪽을 닮음’의 뜻이고 예시 ‘(18)나’의 ‘친살불이’는 ‘혈통이 같은 가까운 겨례불이’의 뜻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으므로 예시 (18)은 [+혈연관계]의 의미만 나타낼 수 있다.

(19)처럼 ‘친(親)-’이 직접 혈연관계의 1촌, 2촌, 3촌, 4촌 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촌수를 나타내는 접두사는 1촌부터 7촌까지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접두사는 한 촌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기의 의미에 따라 여러 촌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19) 촌수

가. 1촌 : 친부모(親父母), 친아버지(親아버지), 친-아버지(親아버지), 친어미(親어미), 친아빠(親아빠), 친엄마(親엄마), 친모(親母), 친부(親父), 친아들(親아들), 친딸(親딸), 친자식(親子息), 친녀(親女), 친자(親子), 친아버지(親아버지), 친어머니(親어머니)

나. 2촌 : 친남매(親男妹), 친동기(親同氣), 친자매(親姉妹), 친제(親弟), 친할아버지(親할아버지), 친할머니(親할머니), 친형제(親兄弟), 친형(親兄), 친언니(親언니), 친할아버지(親할아버지), 친누나(親누나), 친누이(親누이), 친동생(親동생), 친오빠(親오빠), 친아우(親아우), 친조모(親祖母), 친조부(親祖父), 친할미(親할미), 친손주(親孫子), 친손자(親孫子), 친손녀(親孫女)

다. 3촌 : 친삼촌(親三寸), 친조카(親조카), 친질(親姪)

라. 4촌 : 친사촌(親四寸)

구체적으로 부모, 자녀의 친족어를 결합한 ‘친(親)’은 1촌, 형제자매, 조부모, 그리고 손자녀의 친족어를 결합한 ‘친(親)’은 2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친삼촌(親三寸)’의 ‘친(親)’도 3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조카 등의 친족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친(親)’은 3촌, ‘친사촌(親四寸)’의 ‘친(親)’은 4촌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 가능한 어기의 친족 관계 종류에 따라 접두사 ‘친(親)’은 다양한 촌수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인균²⁴⁾에서는 ‘시(媼)-, 외(外)-, 친(親)-, 당(堂)-, 양(養)-, 왕(王)-’, 왕방²⁵⁾에서는 ‘친(親)-, 양(養)-, 의(義)-, 시(媼)-, 외(外)-, 당(堂)-, 서(庶)-’, 범기혜²⁶⁾에서는 ‘친(親)-, 생(生)-, 양(養)-’을 친족과 관련된 어휘들과 결합하여 접두사로 쓰이는 것들로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친족 관계, 즉 촌수를 나타내는 다른 접두사 ‘시(媼)-’, ‘생(生)-’, ‘양(養)-’, ‘외(外)-’, ‘당(堂)-’ 등과 ‘친(親)-’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측면에서 ‘친(親)-’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 가. 생부모, 생아버지, 생어머니

‘생(生)-’은 ‘직접적인 혈연관계인’의 뜻을 갖는데 ‘친(親)-’과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 ‘생(生)-’은 ‘출생’ 또는 ‘생명 부여’의 의미가 있으며, 여기서 행위상태와 행위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부모’는 ‘자녀를 낳은 부모’ 또는 ‘실제 부모’라는 뜻으로,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를 가리킨다. 특히 여기서 ‘자기를 낳은’의 의미로 ‘부모’와만 결합할 수 있고 1촌 관계만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친부모’는 자녀와 법적, 사회적 관계가 있는 부모를 의미하는데 생물학적 관계가 없이 양육하거나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생(生)-’은 혈연적 관계를 강조하고, ‘친(親)-’은 일반적으로 ‘생(生)-’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때때로 법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21) 가. 실부모, 실자

나. 실자, 실형, 실제, 실형제

‘실부모’에서 ‘실(實)-’은 ‘실질적인’ 또는 ‘실제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실부모’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친(親)-’처럼 일반적으로 혈연적 관계를 의미로 사용되지만, 때때로 법적이거나 양육적인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생(生)-’에 비해 ‘실(實)-’은 촌수에 더 많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부모, 자녀의 친족어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친족어까지 결합하여 1촌과 2촌을 나타낼 수 있다.

24) 김인균, 「국어의 한자어(漢字語) 접두사(接頭辭) 연구 - 국어사전(國語辭典)의 등재어(登載語)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30: 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85~108쪽.

25) 왕방, 「파생접두사의 의미 분류 연구(1) - 친족관계, 지역적 관계, 수, 부정의미를 중심으로 -」, 『반교어문연구』 25, 반교어문학회, 2008, 41~79쪽.

26) 범기혜, 「한자 접두사의 설정과 사전적 처리」,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 37, 의미학회, 2012, 213~243쪽.

(22) 가. 당부모, 당고모, 당숙모

나. 당형, 당형제

‘당(堂)’은 ‘오촌’ 또는 ‘사촌’의 의미인데 혈연관계는 나타낼 수 있으나 직계의 혈연관계는 나타내지 않으므로 ‘친(親)’과 ‘생(生)’은 혈연관계의 원근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이 외에 ‘당(堂)’은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등 동기어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래서 ‘생(生)-’, ‘실(實)-’, ‘당(堂)-’에 비하여 ‘친(親)-’은 의미가 넓다.

(23) 가. 양부모, 양아들, 양딸

나. 양조모, 양할머니, 양할아버지, 양손자, 양손녀

‘양(養)’과 ‘친(親)-’, ‘생(生)-’, ‘실(實)-’, ‘당(堂)-’을 비교해보면 의미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 ‘양(養)’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뜻이다. ‘양부모’는 일반적으로 입양한 부모를 의미한다. 즉,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양부모’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돌보며, 법적으로도 자녀의 부모로 인정받는다. 이때 ‘양(養)’은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호적에 등재된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양(養)’과 결합한 친족어 여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 1촌, 2촌의 친족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24) 가. 시부모, 시이모, 시고모, 시아주머니

나. 시동생, 시누이, 시삼촌

다음에 ‘시(嫗)’는 친족 관계만을 나타내는 ‘남편의’의 의미가 있는데 남편의 가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의’라는 것은 친족을 지칭하는 것이고, 남자의 입장에서 ‘아내의’라는 뜻을 표현할 때는 접두사 없이 ‘장인, 장모, 처고모, 처이모, 처제, 처삼촌’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25) 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조모, 외조부

나. 외손자, 외손녀, 외손주

다. 외조카, 외숙질, 외삼촌, 외숙모, 외숙부

라. 외사촌, 외형제, 외형, 외제

마. 외종질, 외종숙, 외당숙

바. 외자매

사. 외탁

마지막으로 ‘친(親)’과 반대말이 되는 ‘외(外)-’가 있다. ‘외(外)-’는 ‘모계 혈족 관계인’의 뜻이고 ‘친(親)’과 같이 결합된 여기에 따라 의미가 더욱 다양해지고 다양한 촌수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 ‘(25)가’는 외손자, 외손녀의 입장에 보면 ‘모계 혈족’이라는 뜻이고, 예시 ‘(25)나’는 외조부모의 입장에 보면 ‘딸이 낳았

다’라는 뜻이므로 ‘외(外)-’는 서로 다른 입장에 보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 외(外)-’는 모두 2촌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예시 ‘(25)다’는 3촌, 예시 ‘(25)라’는 4촌, 예시 ‘(25)마’는 5촌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예시 ‘(25)바’는 ‘아내의 자매. 처형이나 처제’의 뜻으로 남편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다.²⁷⁾ 또한, 예시 ‘(25)사’의 ‘외탁’은 ‘생김새나 체질, 성질 따위가 외가 쪽을 닮음’의 뜻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친(親)-, 생(生)-, 실(實)-, 당(堂)-, 양(養)-, 시(媿)-, 외(外)-’는 모두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생(生)-’ 및 ‘실(實)-’의 의미와 관계 존수를 분석을 통해 ‘친(親)-’는 일반적으로 ‘혈연 관계인’의 의미로 사용되나 때때로 법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生)-, 실(實)-, 당(堂)-, 양(養)-, 시(媿)-’는 결합한 후행하는 어기, 그리고 표현된 친족 관계 존수에 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반대로 ‘친(親)-’과 반의어로서 ‘외(外)-’는 결합된 친족어 어기에 따라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게다가 서로 다른 존수를 표현할 수 있다.

2. [‘친(親)’(준접두사)+X(어기)] 구성

(26) 국어사전 : 친미(親美), 친일(親日), 친북(親北), 친정부(親政府), 친환경(親環境)

(26)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사전에는 [‘친(親)’(준접두사)+X(어기)]로 구성된 다섯 개의 단어만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친(親)’(준접두사)+X(어기)] 구성을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를 통해서 ‘친미(親美), 친일(親日), 친북(親北), 친정부(親政府), 친환경(親環境)’을 제외하고 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사용했던 [‘친(親)’(준접두사)+X(어기)] 구성의 신어를 더 많이 수집하였다. 수집한 [‘친(親)’(준접두사)+X(어기)] 구성 단어들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수집한 [‘친(親)’ (준접두사)+X(어기)] 구성 단어

구성	예시
‘친(親)’+한자어	2음절: 친공(親共), 친청(親淸), 친한(親韓), 친중(親中), 친야(親野), 친왜(親倭), 친이(親李), 친송(親宋), 친금(親金), 친원(親元), 친명(親明), 친당(親唐), 친러(親俄), 친로(親露), 친초(親楚)
	3음절: 친미국(親美國), 친서방(親西方), 친중일(親中日), 친개혁(親改革), 친중국(親中國), 친북한(親北韓), 친국민(親國民), 친서민(親庶民), 친만민(親萬民), 친생태(親生態), 친현대(親現代), 친한파(親韓派), 친한국(親韓國), 친평민(親平民), 친재벌(親財閥), 친노론(親老論), 친유태(親猶太), 친체제(親體制), 친자본(親資本), 친여권(親與黨圈), 친시장(親市場), 친시대(親時代), 친소련(親蘇聯), 친생명(親生命), 친민주(親民主), 친시장(親市場), 친기업(親企業), 친원전(親原電), 친노조(親勞組), 친고려(親高麗), 친공산(親共產), 친교황(親敎皇), 친교도(親敎徒), 친군사(親軍事), 친기독(親基督), 친귀족(親貴族), 친내란(親內亂), 친미관(親美觀), 친반란(親叛亂), 친대만(親臺灣), 친북괴(親北傀),

27) 왕방, 「한국어 접두사 의미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48쪽 참조.

구성	예시
	친독재(親獨裁), 친외세(親外勢), 친생물(親生物), 친노동(親勞動), 친자연(親自然), 친해양(親海洋) 4음절: 친공노선(親共路線), 친북세력(親北勢力), 친미주의(親美主義), 친서구화(親西歐化), 친미인사(親美人士), 친북단체(親北團體), 친왜집단(親倭集團), 친중세력(親中勢力), 친노동자(親勞動者), 친전자성(親電子性), 친평민당(親平民黨), 친시장론(親市場論), 친고구려(親高句麗) 5음절: 친서방정책(親西方政策), 친중공정책(親中共政策), 친미사대주의(親美事大主義), 친서방노선(親西方路線), 친민주주의(親民主主義), 친시장론자(親市場論者), 친사회주의(親社會主義)
‘친(親)’+ 고유어	4음절: 친이수성(親 이수성), 친이한동(親 이한동), 친이회창(親 이회창), 친후백제(親 후백제), 친김대중(親 김대중), 친김영삼(親 김영삼), 친김정일(親 김정일), 친박철언(親 박철언), 친장제스(親 장제스), 친이종찬(親 이종찬), 친이승만(親 이승만), 친오자와(親 오자와)
‘친(親)’+ 외래어	3음절: 친유럽(親 유럽), 친이란(親 이란), 친파쇼(親 파쇼), 친터키(親 터키), 친쿠바(親 쿠바), 친사담(親 사담), 친엘친(親 엘친) 4음절: 친아시아(親 아시아), 친이라크(親 이라크), 친프랑스(親 프랑스), 친카톨릭(親 카톨릭), 친슬라브(親 슬라브), 친그리스(親 그리스), 친게릴라(親 게릴라), 친골카르(親 골카르), 친이슬람(親 이슬람) 5음절: 친감보디아(親 감보디아), 친아라파트(親 아라파트), 친네덜란드(親 네덜란드), 친다케시타(親 다케시타), 친모스크바(親 모스크바), 친이탈리아(親 이탈리아), 친이스라엘(親 이스라엘) 6음절: 친인도네시아(親 인도네시아), 친고르바초프(親 고르바초프)

〈표 7〉을 통해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는 한자어일 수도 있고 고유어일 수도 있고 외래어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친(親)’+한자어 구성은 ‘친(親)’+고유어 구성과 ‘친(親)’+외래어 구성보다 수량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친로정책(親로政策), 친북운동(親北운동), 친이그룹(親이그룹), 친여단체(親여團體), 친불소화론(親불소화論)’ 등과 같은 단어들이 〈표 7〉에서 수집되지 않았다. 후행하는 어기가 단어어휘가 아닌 고유어와 한자어 또는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친(親)’(접두사)+X(어기) 구성을 비하여, ‘친(親)’(준접두사)+X(어기) 구성은 후행으로 이어지는 어기 모두 비친족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비친족어와 연결된 ‘친(親)’이 어근인지 접두사인지 준접두사인 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의미 해석도 다르다. 양영진²⁸⁾과 주교령²⁹⁾은 모두 비친족어와 연

28) 양영진, 「한자복합어 의존 형태소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82~86쪽.

29) 주교령, 앞의 논문, 2011, 70~72쪽.

결된 ‘친(親)’의 의미를 ‘그것과 친한’으로 이해하였으나, 양영진³⁰⁾은 이를 어근으로, 주교령³¹⁾은 접두사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노명희³²⁾는 비친족어와 결합된 ‘친(親)’이 ‘그것에 찬성하는’과 ‘그것과 친한’의 의미를 지닌 준접두사로 사용되었음을 밝혔고 희상³³⁾은 ‘친(親)’이 ‘그것에 찬성하는’과 ‘그것을 돕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서미옥³⁴⁾은 비친족어와 결합된 ‘친(親)’이 ‘그것을 돕는’의 의미를 지닐 때 준접두사로,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의 의미를 지닐 때 접두사로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본고는 비친족어와 연결된 ‘친(親)’을 모두 준접두사로 간주하였다. 이 본 절에서는 [‘친(親)’(준접두사)+X(어기)] 구성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 범주를 분석하겠다.

(27) 가. 친시장(親市場), 친서방(親西方)

나. 친제품시장(親商品市場), 친서방노선(親西方路線)

다. 친환경제품시장(親環境商品市場), 친서방노선정책(親西方路線政策)

먼저 형태적 분석해 보면 [‘친(親)’(준접두사)+X(어기)] 구성은 2음절, 3음절, 4음절, 심지어 5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예시 ‘(27)나’ 및 ‘(27)다’는 ‘친시장(親市場)’과 ‘친서방(親西方)’을 바탕으로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 사이 또는 어기 뒤에 단어를 넣어 새로운 독립적 어기로 확장하고, ‘친(親)’과 결합하여 새로운 파생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친(親)’은 준접두사로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와 분리성이 있다. 즉, ‘친시장(親市場), 친서방(親西方)’과 같은 단어들은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 사이 또는 어기 뒤에 새로운 성분을 넣어 확장할 수 있다.

(28) 가. 친시장(親市場): 친 제품 시장

나. 친서방(親西方): 친 서방 노선

예시 (28)처럼 ‘친시장(親市場), 친서방(親西方)’은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 사이 또는 어기 뒤에 새로운 단어를 넣어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시 ‘(28)가’의 ‘친시장(親市場)’은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시장’ 사이에 ‘제품’을 넣어 확장하고, 예시 ‘(28)나’의 ‘친서방(親西方)’은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서방’ 뒤에 ‘노선’을 넣어 확장하여 구성한다. 예시 ‘(28)나’와 예시 (28)는 형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예시 (28)는 띄어쓰기가 있으므로 ‘친(親)’의 수식하는 범위를 변화시켰다. 예시 ‘(28)나’를 분석해 보면 ‘친제품시장, 친서방노선’은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뒤에 나타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제품시장 전략, 친서방노선 정책’처럼 ‘친제품시장’은 ‘전략’을 수식하고 그 의미를 한정하며 ‘친서방노

30) 양영진, 앞의 논문, 2010, 82~86쪽.

31) 주교령, 앞의 논문, 2011, 70~72쪽.

32) 노명희, 앞의 책, 2005, 173~174쪽.

33) 희상,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중국어 접두사의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5~116쪽.

34) 서미옥, 앞의 논문, 2015, 7~30쪽.

선'은 마찬가지로 '정책'을 수식하고 그 의미를 한정한다. '친제품시장, 친서방노선'은 하나의 전체로서 관형사의 수식 기능을 가지고 있다.

(29) ((27)나) 가. [[친제품시장 (전략)]

나. [[친서방노선 (정책)]

(30) ((28)) 가. [[친 제품 시장]

나. [[친 서방 노선]

그러나 예시 (30)는 예시 (29)에 비하여 다르다. 예시 '(29)가'의 '친 제품 시장'은 '친(親)'과 '제품'이 함께 '시장'을 수식하고 예시 '(29)나'의 '친 서방 노선'은 '친(親)'과 '서방'이 함께 '노선'을 수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친(親)'이 관형사 기능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친(親)'은 관형사로 보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관형사와 접두사는 문법적으로 유사하다. 학교 문법에서는 관형사가 체언 앞에 놓여 있고,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로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형태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것은 수식을 받은 체언과 함께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접두사도 마찬가지이다. 준접두사의 경우에 대하여 예시 (31)를 보면 준접두사도 체언 앞에 놓여 있고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로 조사와 결합이 안 되고 형태가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다.

(31) 가. 친-시장, 친-서방

나. *친이, *친을

준접두사와 관형사는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예시 '(32)가'를 보면 관형사는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준접두사는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와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친 제품 시장, 친 서방 노선'과 같은 용법이 존재하게 된다. 다만 예시 '(32)나'처럼 '친(親)'이 명사(중간 띄어쓰기 있음)를 직접 수식하면 '*친 시장, *친 서방'과 같은 비어가 된다. 그래서 준접두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사처럼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는 없다. 준접두사는 명사를 단독으로 수식할 수 없으며, 다른 자립형 명사와 함께 수식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다.

(32) 가. 새 신, 다른 집

나. *친 시장, *친 서방

또한, 수식된 체언과의 결합 자유도도 고려할 만한 문제이다. 관형사와 체언의 결합도가 매우 높으며, 즉 관형사와 어떤 체언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데 준접두사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관형사인 '새'가 '새 체제, 새 문화, 새 독점, 새 인륜, 새 도덕'처럼 후행하는 명사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데 비해 준접두사 '친(親)

은 ‘친체제, ?친문화, ?친독점, *친인륜, *친도덕’처럼 결합된 후행하는 명사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준접두사가 관형사에 비해 한정적인 분포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다.

- (33) 가. 새 체제, 새 문화, 새 독점, 새 인륜, 새 도덕
나. 친체제, ?친문화, ?친독점, *친인륜, *친도덕³⁵⁾

이 외에 이현희³⁶⁾에서는 관형사와 접두사를 변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 제시하였는데³⁷⁾ 그중 하나가 ‘후행 성분의 범주’이다. 후행 성분의 범주에 대해 접두사는 체언 외에 용어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형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형사와 접두사의 범주가 겹칠 때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범주 구분 문제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관형사성 접두사이다. 관형사성 접두사는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접두사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명사의 성질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준접두사 ‘친(親)’을 관형사성 접두사로 볼 수 있을지 의심된다.

- (34) 가. 구 러시아 공사관
나. 구러시아 공사관

관형사성 접두사 ‘구(舊)-’를 예로 들어 준접두사 ‘친(親)’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³⁸⁾ 정수현³⁹⁾에서는 ‘구(舊)-’는 관형사로 ‘지난날의, 지금은 없는’ 의미가 풀이되어 있는데 접두사로 ‘묵은’ 또는 ‘낡은’으로 뜻이 풀이되어 있다고 하였다. 예시 (34)을 분석하면 예시 ‘(34)가’는 현재 구러시아 공사관 자리에는 기념비와 비슷한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지금 해당 실체가 없으니 ‘구 러시아 공사관’이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시 ‘(34)나’는 예전에 러시아 공사관 자리이기 때문에 ‘구러시아 공사관’도 맞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관형어로 해석하든 접두사로 해석하든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준접두사 ‘친(親)’이 포함된 ‘친 제품 시장’ 및 ‘친 서방 노선’에서는 ‘친(親)’의 의미 변화가 없다. 한자어 ‘친(親)’은 관형어라는 용어가 원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가 변했다는 점에서 준접두사 ‘친(親)’과 관형사성 접두사의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 (35) 가. [구 [러시아 공사관]]

35) 노명희, 「어기의 범주를 바꾸는 접두한자어」, 『韓國言語文學』 53, 한국언어문학회, 2004, 123~151쪽. ‘친(親)’은 ‘인륜적 행위’, ‘도덕적 연사’ 등의 어기를 결합하여 특별히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생산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제시하였다.

36) 이현희, 「관형사의 접두사 범주로의 이동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219~254쪽.

37) 이현희, 위의 논문, 2009, 219~254쪽. 관형사와 접두사를 변별하기 위해 ‘분포 한정성’, ‘자립성’, ‘후행 성분의 범주’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38) 정수현, 「관형사와 접두사 경계의 모호성 고찰」,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267~292쪽.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구(舊)-, 귀(貴)-, 단(單)-, 본(本)-, 성(聖)-, 수(數)-, 연(延)-, 총(總)-’이 일음절 관형사성 접두사 한자어로 정리하였다.

39) 정수현, 위의 논문, 2017, 267~292쪽.

- 나. [[구러시아 공사관
 다. [구러시아공사관
 (36) 가. [[친 제품 시장
 나. [[친제품 시장
 다. [친제품시장 (정책)]

또한, 수식의 범위에서 준접두사 ‘친(親)’과 관형사성 접두사의 차이를 분석한다면 ‘구(舊)’가 관형사일 경우는 수식할 후행 요소가 명사구인데 접두사로 처리할 경우는 명사구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시 ‘(35)나’ ‘구러시아 공사관’은 ‘옛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러시아공사관’은 표현하는 ‘예전의 러시아 공사관’의 의미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예시 (36)를 보면 준접두사 ‘친(親)’이 관형사 기능을 갖든 준접두사로 처리하든 ‘친(親)’의 수정 범위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시 ‘(36)다’와 같이 띄어쓰기가 모두 없어져서 체언으로써 조사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친제품시장’은 뒤에 나타낼 명사를 전체적으로 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식의 범위에 대한 두 가지 점에서 준접두사 ‘친(親)’과 관형사성 접두사의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접두사 ‘친(親)’과 관형사성 접두사는 ‘의미 변화’와 ‘수식의 범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한편, 어떤 한자어 형태소를 준접두사로 설정할 때에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 ‘본래 의미와의 유연성 유지 여부’에서 준접두사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된다. 한자어에 적용한다면 본래 뜻과 같은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한자의 본래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명희⁴⁰⁾에서는 ‘친민주, 친서방, 친정부’ 등과 단어들의 ‘친(親)’이 어기에 대해 서술적 기능을 하면서 ‘-과 친한, -에 찬성하는’의 어휘 의미가 발휘되어 접두사로 발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였다. ‘친(親)’은 원래 한자에서 ‘친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친정부’이나 ‘친민주’에서처럼 후행하는 어기와 결합하여 어기와 관련된 경향이나 행위가 있는 준접두사로 쓰인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 사전에서는 비친족어와 결합할 때 ‘친(親)’의 기본 뜻은 (일부 명사 앞에서)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에 ‘친(親)’을 부여한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준접두사 ‘친(親)’의 예를 보고자 한다. 준접두사 ‘친(親)’은 모두 명사성 어기와 결합하여 명확한 의미를 형성한다. 이때 ‘친(親)’은 주로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이라는 기본 의미로 해석된다. 아래의 예시 (37)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 (37) 친미(親美), 친일(親日), 친정부(親政府), 친민주(親民主), 친시장(親市場),
 친기업(親企業), 친원전(親原電), 친노조(親勞組), 친혁명(親革命),
 친현대(親現代), 친서방(親西方), 친환경(親環境), 친개혁(親改革)

40) 노명희, 앞의 책, 2005, 173~174쪽.

예시 (37)의 ‘친(親)-’은 모두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이라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친서방(親西方)’ 등과 같은 단어는 서방을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는 주관적인 입장을 더 강조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쓰게 되며, ‘친시장(親市場)’과 같은 단어는 ‘시장에 찬성하는’ 의미보다는 ‘시장의 이익에 주목하고 시장에 유리한’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게 되며, ‘친환경(親環境)’과 같은 단어는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친(親)-’이 여러 어기와 결합하면서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 의미만으로는 해석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 결합된 어기에 따라 ‘친(親)-’은 더 많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친(親)-’의 의미는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 의미에 기초해서 세분화되어 있는데, 어기의 특성과 후행으로 결합하는 특정 명사의 공기 양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①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의 의미

- (38) 가. 친공(親共), 친청(親淸), 친한(親韓), 친중(親中), 친일(親日), 친유럽(親유럽), 친이란(親이란), 친북한(親北韓), 친이라크(親이라크), 친프랑스(親프랑스), 친카톨릭(親카톨릭), 친슬라브(親슬라브) 등
 나. 친이수성(親이수성), 친이한동(親이한동), 친이회창(親이회창), 친후백제(親후백제), 친김대중(親김대중), 친김영삼(親김영삼), 친박철언(親박철언), 친장제스(親장제스), 친이종찬(親이종찬) 등
 다. 친개혁(親改革), 친공산(親共產), 친군사(親軍事), 친민주(親民主), 친독재(親獨裁), 친내란(親內亂), 친반란(親叛亂) 등

먼저 위의 예시 (38)는 일부 어기와 결합하여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친(親)-’과 결합된 후행하는 어기는 국가명, 인명, 당파, 주의, 정책에 속하는 명사들이다. 예를 들어, 예시 ‘(38)가’에서 ‘유럽’, ‘북한’ 등과 같은 명사는 모두 국가명, 예시 ‘(38)나’에서 ‘이수성’, ‘이한동’ 등과 같은 명사는 모두 인명, 예시 ‘(38)다’에서 ‘개혁’, ‘공산’ 등과 같은 명사는 모두 주의나 정책을 말한다. 이외에 ‘친(親)-’은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의 의미로 사용될 때, 뒷부분에서는 보통 ‘교포, 대통령, 인사, 세력, 정권’ 등과 같이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나 ‘정책, 정권, 주의, 전략, 행정, 원칙, 외교, 왕정, 시위’ 등과 같은 정치와 관련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 (39) 가. ‘친미’ 민진당 재집권...미중 갈등 속 한반도 정세 영향은?

(KBS News(2024.1.14))

- 나. 일제 강점기, 보통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친일’했다고? 정말?

(KBS News(2023.7.7.))

예시 (39)을 보면 이때 ‘친(親)-’은 어떤 국가나 당파나 정권 주위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주관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예시 ‘(39)가’의 ‘친미’는 미국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한 민진당의 편파적인 입장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민진당이 미국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시 ‘(39)나’의 ‘친일’은 일제 강점기에 외적 강제요인으로 인해 개인이 ‘일본의 옹호와 지지하는 주관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친(親)-’은 대체로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한다.

② ‘그것에 유리하고, 그것의 이익에 주목하는’의 의미

(40) 친시장(親市場), 친기업(親企業), 친노조(親勞組), 친만민(親萬民), 친서민(親庶民), 친평민(親平民), 친국민(親國民), 친노동(親勞動), 친재벌(親財閥), 친귀족(親貴族), 친자본(親資本) 등

위에 제시된 예시 (40)의 준접두사 ‘친(親)-’은 일부 집합명사 어기와 결합할 때 그 파생어는 주로 ‘그것에 유리하고, 그것의 이익에 주목하는’의 의미를 지닌다. 예시 (40)에서의 어기 ‘만민’, ‘평민’, ‘귀족’, ‘재벌’ 등은 집합명사로서 개별적인 요소들이 모여 형성된 그룹이나 집단을 지칭한다.

(41) ㄱ. 친정부 보도’ 비판 삭제··함량 미달 KBS 보고서

〈MBC 뉴스(2024.6.4)〉

나. 친기업은 이미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고,

친시장은 지배적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경쟁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매일경제 뉴스(2023.4.17.)〉

예시 ‘(41)가’ 보면 ‘친정부 보도’의 ‘친(親)-’은 ‘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의미라기보다 ‘정부의 이익을 주목하고 정부에 유리한 보도’를 강조한다 뜻이다. 정부의 이익을 우선시키기 때문에, 발표는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시 ‘(41)나’의 ‘친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친시장’은 ‘전체 시장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경쟁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친(親)-’은 대체로 ‘그것에 유리하고, 그것의 이익에 주목하는’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그것을 보전하고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의 의미

(42) 친환경(親環境), 친생태(親生態), 친생물(親生物), 친생명(親生命), 친자연(親自然), 친해양(親海洋) 등

위의 예시 (42)은 준접두사 ‘친(親)-’이 쓰여 파생어가 주로 ‘그것을 보전하고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예시 (42)에서 제시된 ‘친(親)-’은 자연 물질 명사인 어기와 결합한 예인데, 전술하였듯이 ‘친(親)-’은 자연 물질 명사와 결합할 때 ‘그것을 보전하고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의 의미를 가지

기도 한다. ‘친환경(親環境)’과 같은 단어는 ‘환경을 보호하고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상으로 준접두사 ‘친(親)’의 의미를 관찰해 보았을 때 결합한 어기에 따라 ‘친(親)’의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준접두사 ‘친(親)’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 준접두사 ‘친(親)’의 의미:

- 가. 어기를 옹호하고 지지함
- 나. 어기의 이익에 주목하고, 어기에 유리함
- 다. 어기를 보전하고 어기에 해를 끼치지 않음

3. [X(어기)+‘친(親)’(준접미사)] 구성

국어사전에서는 한자어 ‘친(親)’이 접미사로 쓰이는 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참최친(斬衰親), 기공친(耜功親)’과 같은 단어의 ‘친(親)’이 3자어에서 접미사 위치에 고정되어 접미사의 성질을 얻었으나 접미사의 문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미사의 성질을 갖는 ‘친(親)’을 준접미사로 보인다. <표 8>은 국어사전과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를 통해 수집된 ‘친(親)’을 준접미사로 하는 단어이다. 수집한 [X(어기)+‘친(親)’(준접미사)] 구성 단어들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수집한 [X(어기)+‘친(親)’(준접미사)] 구성 단어

구성	예시
한자어+‘친(親)’	2음절: 복친(服親), 사친(私親)
	3음절 : 기공친(耜功親), 남계친(男系親), 내외친(內外親), 단문친(袒免親), 당내친(堂內親), 대공친(大功親), 모계친(母系親), 무복친(無服親), 방계친(傍系親), 부계친(父系親), 비속친(卑屬親), 소공친(小功親), 시마친(緦麻親), 여계친(女系親), 오복친(五服親), 유복친(有服親), 이성친(異姓親), 일등친(一等親), 자최친(齊衰親), 재최친(齊衰親), 존속친(尊屬親), 직계친(直系親), 참최친(斬衰親), 혈족친(血族親), 고토친(故土親), 팔등친(八等親)

<표 8>에서 준접미사로서 ‘-친(親)’은 준접두사로서 ‘친(親)’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을 검색하면 준접미사 ‘-친(親)’이 파생된 파생어의 어기는 모두 한자어 어기이다. 즉, ‘-친(親)’이 준접미사로 쓰이는 파생어에서 한자어 결합형만 존재한다. 그리고 파생어에서 선행하는 어기는 모두 명사형 어기이다. 본 절에서는 준접미사 ‘-친(親)’의 의미적 특성과 ‘-친(親)’이 파생된 접미사적 파생어의 본질 및 어기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44) 가. 사친(私親)

- 나. 남계 - 친(男系親), 참쇠 - 친(斬衰親), 존속 - 친(尊屬親), 내외 - 친(內外親), 직계 - 친(直系親), 혈족 - 친(血族親), 모계 - 친(母系親), 여계 - 친(女系親), 부계 - 친(父系親), 방계 - 친(傍系親), 비속 - 친(卑屬親), 당내 - 친(堂內親), 이성 - 친(異姓親), 일등 - 친(一等親), 고토 - 친(故土親), 팔등 - 친(八等親)

(45) 가. 복친(服親)

- 나. 기공 - 친(葛功親), 무복 - 친(無服親), 오복 - 친(五服親), 재쇠 - 친(齊衰親), 대공 - 친(大功親), 시마 - 친(總麻親), 단문 - 친(袒免親), 소공 - 친(小功親), 유복 - 친(有服親), 자쇠 - 친(齊衰親)

예시 (44)에서 제시된 접미파생어는 모두 ‘친족(親族)’을 지시한다. 형태적으로 보면, ‘-친(親)’이 결합한 어기는 모두 명사 한자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파생된 3자어 외에 파생된 2자어가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예시 ‘(44)나’의 ‘친(親)’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시 ‘(45)나’의 ‘친(親)’은 ‘특정 장소에서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는 친족’이라는 의미가 있다. ‘-친(親)’이 사람을 지시한다는 의미를 유지해 오기 때문에 ‘-친(親)’은 [+사람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접사성 ‘친(親)’의 어휘 형성 패턴

제3장에서는 ‘친(親)’과 자립적 어기가 결합한 단어의 유형을 연구하여 ‘친(親)’이 접두사, 준접두사, 준접미사를 담당하는 구성요소를 가진 대부분 단어의 형성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는 표면적인 유사성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유사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새로운 단어 형성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초 단어로서 유추하는 단어 형성에 참여할 수도 있다.

채현식⁴¹⁾에서 제시한 유추의 단어 형성 과정에 따르면 유추 과정에서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를 ‘개념 : 형식’을 중심으로 비교, 정렬하여 둘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표적 단어를 유추한다. 이러한 ‘개념 : 형식’을 비교, 정렬하는 과정을 통해 틀이 추상된다. 이러한 틀에는 근거 단어의 내부 구조적 관계가 반영되는데 이를 표적에 사상함으로써 새로운 단어가 유추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하는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이 추상적인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친자매’를 기반으로 ‘친형제’를 추정하는 과정을 재현해 보여주기로 한다.

41) 채현식,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2003, 117쪽 참조. 제시한 ‘유추의 단어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새로운 단어(표적 단어)를 만들겠다고 확인한다.
나. 어휘부에서 표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
다. 근거 단어의 ‘개념 : 형식’과 표적의 ‘개념 : 형식(X)’을 비교, 정렬해서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 사이의 공통성을 포착한다.
라. 근거 단어로부터 추상된 구조적인 관계를 표적 단어에 사상한다.

(46) 유추에 의해 ‘친형제’가 형성되는 과정⁴²⁾

가. 새로운 개념 :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 : 새로운 형식-[X]

나. 기존 단어 탐색 : 친자매

다. 근기 단어와 표적 단어의 비교, 정렬 : ‘개념 : 형식’

①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매> : [친자매]

② <자매> : [자매]; <같은 부모에게서 난 -> : [친-]

→ [친-[?N(X=형제자매의 친족어)]N]

라. 근기 단어의 내부 구조적 관계를 표적 단어의 표상:

<형제> : [?]; <같은 부모에게서 난 -> : [친-]

→ [?]=[형제], [X]=[친형제]

→ 새로운 단어 : 친형제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 사이를 ‘개념 : 형식’으로 비교, 정렬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위의 과정 (46)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정 ‘(46)다’에서 근거 단어인 ‘친자매’를 대상으로 ‘개념 : 형식’을 정렬하는 절차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러한 정렬은 새로운 개념, 즉 표적 단어에 따라 표현되는 개념인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것이다. 유추 과정에서 근거 단어와 표적 단어 간의 비교에 따라 항상 잠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과정 ‘(46)다②’는 ‘개념 : 형식’의 정렬을 기반으로 단어의 내적 구조에 대한 인식 또는 분석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친-[?N(X=형제자매의 친족어)]N]이라는 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유추 방법에 따라 접두사, 준접두사, 준접미사의 구성요소로 ‘친(親)’이 포함된 단어의 형성 패턴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단어들은 모두 파생어에 속하지만, ‘친(親)’이 접사성을 갖는 정도에 따라 진파생어와 준파생어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접두사 ‘친(親)’으로 구성된 단어는 진파생어에 해당하며, 준접두사 및 준접미사 ‘친(親)’으로 구성된 단어는 준파생어로 분류된다. ‘친(親)’이 포함된 파생어의 형성 패턴은 다음과 같다.

(47) 접두사로 ‘친(親)’이 포함된 진파생어:

가. 친남매, 친동기(親同氣), 친자매, 친형제, 친누나, 친누이, 친동생, 친오빠, 친아우, ...

→ [친-[X]N(X=형제자매의 친족어)]N

나. 친부모, 친아버지, 친아비, 친어미,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아빠, 친엄마, ...

→ [친-[X]N(X=부모의 친족어)]N

다. 친아들, 친딸, 친자식, ... → [친-[X]N(X=자식의 친족어)]N

라. 친부형, 친사촌, 친삼촌, 친조모, 친조부, 친할미, 친손자, 친손주, 친조카, ...

→ [친-[X]N(X=부계의 친족어)]N

42) 송원용,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2005, 52쪽 참조. 이 제시한 어휘 내용의 표시 방법을 수용하여 여기서 단어의 의미를 ‘<>’로, 형식을 ‘[]’로 표현한다.

(48) 준접두사로 ‘친(親)’이 포함된 준파생어:

가. 친미국, 친일본, 친유럽, 친이란, 친북한, 친프랑스, 친카톨릭, 친이라크, 친러시아, ...

→ [친-~~X~~N(X=국가명)]N

나. 친이수성, 친이한동, 친이회창, 친후백제, 친김대중, 친김영삼, 친장제스, ...

→ [친-~~X~~N(X=인명)]N

다. 친개혁, 친공산, 친군사, 친민주, 친독재, 친내란, 친반란, ... → [친-~~X~~N(X=정권 주의)]N

라. 친기업, 친노조, 친만민, 친서민, 친평민, 친국민, 친노동, 친재벌, 친귀족, ...

→ [친-~~X~~N(X=집합명사)]N

마. 친환경, 친생태, 친생물, 친생명, 친자연, 친해양, ... → [친-~~X~~N(X=자연 물질)]N

(49) 준접미사로 ‘친(親)’이 포함된 준파생어:

가. 남계친, 참최친, 존속친, 직계친, 혈족친, 모계친, 비속친, 당내친, 부계친, 방계친...

→ [친-~~X~~N(X=혈통)]N

나. 기공친, 무복친, 오복친, 재최친, 대공친, 시마친, 단문친, 소공친, 유복친, 자최친, ...

→ [친-~~X~~N(X=복제)]N

예시 (47)은 ‘친(親)’이 접두사로 구성된 단어의 형성 패턴인데 ‘친(親)’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따라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 예시 ‘(47)가’는 ‘친(親)’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뜻으로 [친-~~X~~N(X=형제자매의 친족어)]N이라는 단어 형성 패턴, 예시 ‘(47)나’는 ‘친(親)’이 ‘자기가 낳은’ 뜻으로 [친-~~X~~N(X=부모의 친족어)]N이라는 단어 형성 패턴, 예시 ‘(47)다’는 ‘친(親)’이 ‘자기를 낳은’ 뜻으로 [친-~~X~~N(X=부계의 친족어)]N이라는 단어 형성 패턴, 또 예시 ‘(47)라’는 ‘친(親)’이 ‘부계 혈연관계인’ 뜻으로 [친-~~X~~N(X=부계의 친족어)]N이라는 단어 형성 패턴을 추상할 수도 있다. 이 단어들은 ‘개념 : 형식’ 사이의 어떤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적 유사성을 나타내고 구조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구조적 유사성은 이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존재하는 규칙성에서 비롯된다.

마찬가지로 예시 (48)은 준접두사로 존재하는 ‘친(親)’이 참여한 단어 형성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예시 ‘(48)가, 나, 다’에서 후행하는 명사가 모두 국가명, 인명, 정권 주의이다. 이들을 ‘친(親)’과 결합하여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뜻으로 [친-~~X~~N(X=국가명)]N, [친-~~X~~N(X=인명)]N, [친-~~X~~N(X=정권 주의)]N이라는 패턴이 있는 단어들을 만든다. 그리고 예시 ‘(48)라’는 ‘친(親)’이 ‘그것의 이익에 주목하고, 그것에 유리하는’이라는 뜻으로 [친-~~X~~N(X=집합명사)]N이라는 단어 형성 패턴을 볼 수 있으며, ‘(48)마’는 ‘친(親)’이 ‘그것을 보전하고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이라는 뜻으로 [친-~~X~~N(X=자연 물질)]N이라는 단어 형성 패턴을 볼 수 있다.

또한, 예시 (49)은 ‘친(親)’이 준접미사로 구성된 단어의 형성 패턴이다. 예시 (49)은 선행 명사인 복제 및 혈통과 관련된 어기는 후행 결합한 ‘친(親)’을 수식하여 [친-~~X~~N(X=혈통)]N, [친-~~X~~N(X=복제)]N이라는 패턴이 있는 단어를 만든다. 예시 (49) 같은 단어들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예시 (47) 및 예시

(48)는 단어의 유형 빈도, 생산성, 그리고 사용률이 비교적 높은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추의 틀’을 통해 ‘친(親)’은 접두사, 준접두사, 준접미사로 형성되는 단어의 내부 구조 관계를 포착하고 ‘개념 : 형식’의 정렬에 따라 단어의 형성 패턴을 추상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의 한자어 접사성 ‘친(親)’이 포함된 단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친(親)’(접두사)+X(어기)] 구성, [‘친(親)’(준접두사)+X(어기)] 구성, [X(어기)+‘친(親)’(준접미사)] 구성으로 나누고 접사성 ‘친(親)’이 포함된 단어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접사성 ‘친(親)’을 포함하는 단어의 형성 패턴을 연구하였다. 접사성 ‘친(親)’은 단어에서 접두사, 준접두사, 준접미사의 구성요소로서 생산성이 높아 조어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접두사 ‘친(親)’과 준접두사 ‘친(親)’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분리성’, ‘의미 변화’, ‘어기의 범주변화’, ‘고유어나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없음(생산성)’ 측면에서 구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정된 접미사 기준에 의해 ‘친(親)’의 접미사적 특성은 검증하였다. 그리고 접미사와 준접미사의 특성 대비를 통해 ‘의미의 유연성 상실’, ‘어기의 범주변화’, ‘첫음절에 출현 불가’, ‘생산성’ 측면에서 ‘친(親)’은 준접미사의 문법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접사로 기능하는 ‘친(親)’이 포함된 파생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親)’이 파생어에서 앞이나 뒤에 놓인 위치에 따라 접두사적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접미사적 형태도 될 수 있는 것이며, 변화된 의미와 원래 의미의 유연성과, ‘친(親)’과 연결된 후행하는 어기가 분리성 등 기준에 따라 접두사, 준접두사 및 준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친(親)’이 포함된 파생어는 [‘친(親)’(접두사)+X(어기)], [‘친(親)’(준접두사)+X(어기)], [X(어기)+‘친(親)’(준접미사)]의 구성하는 단어이다.

먼저, [‘친(親)’(접두사)+X(어기)] 구성에서 ‘친(親)’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파생된 접두파생어에 대한 형태적 특성 및 어기의 의미적 범주를 연구하였다. 접두사 ‘친(親)’은 뒤에 친족어 명사가 붙어서 어기 범주가 바뀌지 않으며 뒤에 붙는 어기가 높임말이나 낮춤말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한편, 접두사 ‘친(親)’은 여러 친족어를 결합함으로써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기가 낳은’, ‘자기를 낳은’, ‘부계 혈연관계인’, ‘직접 결혼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인’, ‘입양으로 맺어진 직계 친족 관계인’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접두사 ‘친(親)’을 ‘혈연관계인 혹은 직접 결혼이나 입양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라는 뜻을 더하는 파생 접두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시(媳)-’, ‘생(生)-’, ‘양(養)-’, ‘외(外)-’ 등을 비교하여 이들 사이의 의미적 또는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고 접두사 ‘친(親)’의 특징과 용법을 깊이 검토하였다.

다음에 [‘친(親)’(준접두사)+X(어기)] 구성에서 준접두사 ‘친(親)’의 성격을 다루며 후행하는 어기와 접두파생어 자체의 형태론적 특징, 그리고 어기의 의미 범주를 연구하였다. 첫째, 준접두사 ‘친(親)’이 결합 가능한

여기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뉘며, ‘친로정책(親老政策), 친북운동(親北운동), 친이그룹(親이그룹)’과 같은 다양한 조합을 관찰하였다. 둘째, 준접두사 ‘친(親)-’의 수식범위가 후행하는 어기 사이의 분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준접두사 ‘친(親)-’과 관형사와 관형사성 접두사 간의 차이를 밝혔다. 셋째, ‘친(親)-’은 준접두사로 기능할 때 ‘그것에 찬성하는’ 또는 ‘그것을 돕는’의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어기와 결합하여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것의 이익에 주목하고, 그것에 유리한’, ‘그것을 보전하고 그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의 의미를 부여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준접미사 ‘-친(親)’의 의미적 특성과 파생된 접미사적 파생어의 자체와 어기의 형태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X(어기)+‘친(親)’(준접미사)]의 구성에서 준접미사 ‘-친(親)’이 결합할 수 있는 어기의 어종은 준접두사 ‘친(親)-’에 비하여 단순해진다. ‘-친(親)’이 준접미사로 쓰이는 파생어에서 한자어 결합형만 존재한다. 그리고 선행 결합한 어기에 따라 준접미사 ‘-친(親)’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족’과 ‘특정 장소에서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 친족’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친(親)’이 포함된 단어들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형태적, 그리고 의미적 통합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단어 형성 패턴을 연구하였다. 유추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개념 : 형식’을 중심으로 비교 및 정렬하여 틀, 즉 단어 형성 패턴을 찾았다.

〈참고문헌〉

-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2005.
- 채현식,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2003.
- 송원용,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2005.
- 김규철, 「漢字語 單語形成에 관한 研究: 固有語와 比較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김인균, 「국어의 한자어(漢字語) 접두사(接頭辭) 연구 - 국어사전(國語辭典)의 등재어(登載語)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30: 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노명희, 「여기의 범주를 바꾸는 접두한자어」, 『韓國言語文學』 53, 한국어언문학회, 2004.
- 방향옥,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범기혜, 「한자 접두사의 설정과 사전적 처리」,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 37, 의미학회, 2012.
- 서미옥, 「한자어 접두사 ‘친(親)’에 대한 연구 -준접두사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 양영진, 「한자복합어 의존 형태소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현희, 「관형사의 접두사 범주로의 이동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 왕방, 「파생접두사의 의미 분류 연구(1) - 친족관계, 지역적 관계, 수, 부정의미를 중심으로 -」, 『반교어문연구』 25, 반교어문학회, 2008.
- 왕방, 「한국어 접두사 의미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주교령,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중국어 접두사의 비교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수현, 「관형사와 접두사 경계의 모호성 고찰」, 『인문과학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허철, 「『現代國語使用頻度調査1・2』를 통해 본 漢字語의 비중 및 漢字의 活用度 조사」, 『한문교육논집』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희상,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중국어 접두사의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0일에 투고되어,
2024년 12월 2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5년 1월 6일까지 심사하고,
2025년 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Lexical Formation of the Affix ‘Chin(親)’

TANG, Kaiyu*

‘Chin(親)’ is widely known as a prefix that is attached to nouns of kinship relationships, such as Chinbumo(parents) and Chinhalmuni(grandmother), meaning ‘blood relatives’. However,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on whether Chinjungbu(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huanjing(Friendly to the surroundings) should be considered prefixes. In addi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chin(親)’ in words such as Nanxichin(A kinship in which blood descent is passed down through males) and Beishuchin(Relatives belonging to the line below the son) can be considered suffixes.

To this end, we introduce the concept of ‘semi-suffix’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suffixes and semi-suffixes, thereby fi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s a prefix, ‘chin(親)-’ is actively used in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 derivatives due to its high productivity. As a prefix in the dependent form, ‘chin(親)-’ acquires the meaning of indicating a certain kinship relationship by combining with kinship nouns. This paper focuses on this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prefix ‘chin(親)-’ while comparing it with other prefixes indicating kinship (degree of kinship) such as ‘si(媳)-’, ‘saeng(生)-’, ‘yang(養)-’, and ‘oe(外)-’ to examine what semantic or function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re are between these prefixes. Through this work, we will be able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and usage of the prefix ‘chin(親)-’. In addit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aspects of the formation of Korean derivative words and their semantic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emi-prefix ‘chin(親)-’ and the semi-suffix ‘chin(親)-’. Through the above, we will observe not only the semantic but also the morphological relationship of the root or stem that combines with ‘chin(親)’ to find the structural commonalities of words containing ‘chin(親)’ and study the formation patterns of words containing ‘chin(親)’.

[Keywords] the Affix ‘Chin(親)’, prefix, semi-prefix, semi-suffix, word formation patterns, Abstract frame

* Kyunghee University